

기독교 세계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WORLDVIEW. 과연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으로 조망하는 세계관 운동,
그 시작과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논하기
위해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수장들이 모였다.

☞ 사회 : 조성표 (실행위원장)



세계관의 시작, 언제, 어디로 볼 것인가?

양승훈 저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자인 오르(James Orr 1844-1913)가 세계관 구조의 직접적인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1893년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라는 강의록에서 반기독교적 시대정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실재에 대한 새롭고 일관성 있으며 포괄적인 기독교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세무사항에 대한 반대가 아닌 원리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세계관(Weltanschauung)을 모든 진리를 살아있는 전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는 더 고차원적인 체계라고 보면서, 세계관적 접근의 유익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김승욱 저는 세계관은 일종의 조직신학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왜 19세기의 오르를 세계관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조직신학으로 본다는 것인데 시작이 그 이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승훈 물론 어거스틴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깊은 뿌리이구요. 계몽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변증 내지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오르가 가장 구체적으로 구조와 전략을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지만, 그 중에서 세계관 운동의 독특한 점은 회복된 창조세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김승욱 그럼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창조에 대한 입장이 다른가요.



양승훈 그들도 강조를 했지만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세상을 개혁하려 했고,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려 했던 칼빈의 경우, 창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김승욱 칼빈은 사회 문제를 강조했고, 그 뿌리를 어거스틴에서 찾더군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본다면 이 운동의 역사성이 19세기 독일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봉호 서양의 사상사에서 19세기까지는 "서양사상 즉 기독교사상"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지 그 사상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양 교수님이 계몽주의를 언급했지만 계몽주의 시대부터 반 기독교적 정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9세기 들어와서 상대주의가 생겨났어요. 쇼펜하우어, 니체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상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상대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겨난 게 "Weltanschauung(세계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인본주의와 기독교적 관점을 하나로 몽둥그려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네덜란드 카이퍼가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휴머니즘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바탕은 칼빈, 루터, 어거스틴 등의 가르침에 있지만, 인본주의에 대항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것에는 벌써 상대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eltanschauung이라는 단어가 이미 상대주의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세계관 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전에는 뭐든 설명하면 그 자체가 기독교적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독일을 예로 들어서 신학과가 주립대학 안에 있잖아요. 그건 대학이 곧 기독교대학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대학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기독교

과연 세계관이 19세기 언어의 산물인가?



교대학이라니, 모든 대학이 기독교대학인데 무슨 기독교대학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퍼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은 휴머니즘이다 한 거죠. 그래서 19세기부터 그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문준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세계관의 구조, 즉 창조, 타락, 구속이 일종의 거대 담론, 성경에 있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계관' 하면 철학적인 느낌이 강하고, 일차적으로 느낌보다는 생각으로 가는 한 단계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의 주제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통합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서 그걸 강조하면 기독교인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까,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적 세계관을 선명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국원

창조, 타락, 구속을 종합하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 그래서 사실 알버트 월터스 같은 경우 'Creation Regained'(『창조, 타락, 구속의 영서체목』)라는 대학생들 스터디 그룹에서 3~4주 공부하기 위해 주제를 뽑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도서관에서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 책으로 세계관을 다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고헌이 그 책을 냈다 비판을 한 거예요. "이게 철학책같이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월터스가 "그럼 네 대안은 뭐냐" 하니깐 바로 "내러티브 식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나온 책이 『성경은 드라마다』(The Drama of Scripture) 라는 책입니다.

누구든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도예베르트처럼 어떤 체계를 간추려서 내놓는 방법이 있고,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듯이 포괄적으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살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요, 저는 후자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조, 타락, 구속 방식은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모아지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세계관 공부를 해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유익이 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세계관 가르칠 때, 맨 나중에 딱 한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그리고 그 나라 위에서, 현실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양승훈

용어를 달리 사용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마다 분야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손봉호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너무 세속적이 되니까, 뚜렷하게 비기독교적으로 드러나니까.

신국원

명시적으로 Weltanschauung이 됐든 Worldview가 됐든 그걸 누가 먼저 썼느냐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요즘 초대교회의 교부들 문헌들을 쭉 읽는데 좀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터툴리안(Tertullianus)이나 클레멘트(Clement)나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 같은 사람들이 그냥 소박한 목사들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 과장을 하자면 이 사람들이 플라톤 시대에 있었으면 플라톤에 버금갈 수 있는 지성인들이겠다 싶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꿰뚫고 있고, 그들의

원전에는 철학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꿰뚫고 그걸 넘어서 기독교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관과의 싸움이라고요. 어떤 면의 생명력을 잃은.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전통이고 그게 진리다시피한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하는데 그 책들이 절절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벌써 400년 이상의 축적되어 있는 지적 유산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승욱 교수님이 얘기하시던 것처럼 세계관 운동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데 사실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일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스틴 마터와 트라이포의 대화인데,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헬라 철학자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왜 허구인가까지 문헌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거든요. 플라톤에 정통한 어거스틴(Augustin)이 플라톤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 성육신(incarnation), 삼위일체(Trinity)인데 이 둘 다 헬라 사람으로서 도저히 삼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역사관을 나중에 소위 말하는 부수는 싸움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의 뿌리는 결국 복음에 부딪혀 어느 시대에, 어떤 싸움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시대와 문화에 파급되는 것들에 대한 좌절감, 어떤 면에 이미 이전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상실되어있던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세계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시대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엔 오히려 지적인 싸움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반기독교적인 사상가들과 지적인 토론을 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공동체의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개인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관만으로는 참 어떤 때는 응색할 때가 많습니다.

김승욱 교회와 공동체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비판하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신국원 교회의 자기비판과 더불어 대안까지 있어야 해요. 그게 그냥 그래 교회가 잘못이다, 미안하다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대안적인 교회가 있긴 있어야 돼요.

손봉호 죽어가지요. 카이퍼 시대에는 창조가 중요했지만, 나는 카이퍼의 약점이 십자가가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삽니다. 지금은 강대상에 비스킷이 너무 많아서 꼬끼리들이 강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비스킷이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적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카이퍼 시대에는 휴머니즘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휴머니즘에 대한 투쟁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한국 교회는 도덕이라 생각해요.

김승욱 지금까지 세계관 운동을 하면서 교회 비판은 하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나 교회경신협의회 등이 잘하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겠군요?

손봉호 그렇게 되면 허수아비를 치는 게 아닌가 싫어요. 지금 세계관 운동의 가장 큰 적은 이원론 아닙니까. 이원론에서 도덕적 타락이 생겨났으니깐 이원론만 좀 약화시켜도 도덕적인 효과는 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물질주의, 즉 돈을 섬기는 이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최태연 앞의 내용에 덧붙이자면, Weltanschauung이라는 철학의 개념을 오르나 카이퍼가 수용해서 썼잖아요. Weltanschauung을 우리말로 '세계관'이라고 하면 지성적으로 들리는데 독일 전통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개념입니다. 오감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탁!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카이퍼나 오르가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지성주의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체계적인 지식체계에 기독교 교리를, 성경을 체계적으로 지적으로 정리한 면도 있고요. 그게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반면 분명 감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직관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종합된 걸로 봐야 원래부터 "세계관은 지성주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이퍼의 자서전을 보면, 그의 기독교 세계관과 영성의 출발점도 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 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결정적으로 변화했거든요.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이 경건신앙, 개혁파 경건신앙의 실재에 부딪혀서 자기가 깨어나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퍼의 마지막 책인 『하나님께 가까이』(Near Unto God)에는 그의 영적 추구와 사모함이 간절해요. 그런 걸 보면 카이퍼는 분명히 지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그 내면에는 경건과 하나님 체험 등 영성에 대한 추구도 강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 통합이 되는지는 좀 더 우리가 평가해 봐야겠지만, 우리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개념적으로나, 카이퍼라는 인물의 삶에서 보듯이 양쪽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성주의나, 사회적 행동주의,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거나 극단으로 치우치는데 그런 바람직하지 않고 본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출발점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욱 물론 세계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하지요. 그것은 모든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 삶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운동은 아니죠.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 단체가 학자나 지적인 전문인이 많으니 결국 우리가 단체로서 해야 할 세계관 운동의 방향은 결국은 연구나 교육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에 반혁명당에서 이룩한 가장 큰 이슈는 크리스천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서 관철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동역회의 역할도 결국은 교육 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학문연구가 우리의 특화된 운동 방향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성적으로 흐른다는 비판은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뭔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커리큘럼 개발이라든지, 교육 쪽으로 확대해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해온 세계관 운동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금까지 동역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태연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한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자체가 지성과 영성, 또는 경건이 원래부터 하나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신학이랄까 철학이랄까,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양면을 우리가 종합하고 다 수용하는 것은 운동 전략하고는 다릅니다. 삶의 전 영



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차원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터기에 큰 영향을 끼친 히즈메트(또는 굴렌)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있는데, 굉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이슬람 이맘으로 이 사람이 교육에 눈을 땀습니다. 평화주의자로 청소년들, 청년들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르친 것이 학원으로 발전했고, 20~30년 동안 시골의 수많은 가난한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터기 일류대학도 가고, 정부, 노조 등 각 분야에 들어가서 굉장한 정치적 파워를 갖게 되어 현 수상이 그들을 견제할 정도라고 합니다. 교육 운동이 정치 운동으로 발전한 예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역이 경제나 경영 분야로, 문화 예술 운동으로도 나갈 수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으면 학자들이 많으니까 교육운동, 학문운동이 가장 쉽고 구체화하기 쉽죠.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성표 교수님은 세계관의 의미를 얘기하신 거고, 그 맥락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판을 받아왔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관의 정의에서 "세계관이란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까지만 되어 있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신국원 지난 모임에 온 제임스 올타이스(James Olthuis)의 "세계관에 대하여"라는 짧은 논문이 아주 유명해요. 그 사람이 간단하게 worldview는 view of the world + view for the world 이렇게 세계관을 정의하는데 그걸 한 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봉호 인식에 대한 확신이 따라야 세계관이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세계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시험 쳐서 점수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대학 졸업해서 그 대학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성공한 대학은 한세대 하나뿐이지, 기독교 대학이 많이 있지만 신앙 따로, 지식 따로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같이 가려면 교육하는 사람도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학자로서 이론 가지고 가르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을 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기독교적 교육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한 교육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교육은 시험 쳐서 점수 얻고 나중에 이용하려는 교육이지 삶과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삶과 연결이 되는 교육,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양승훈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 VIEW 학생 중 하나가 졸업논문으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델을 세 개를 선정해서 연구했는데, 결론은 적당한 고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BC주 기독교학교 연맹은 반은 국가에서, 반은 학부모가 재정을 지원합니다. 공립학교 주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과서를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티칭 가이드북을 거기서 개발하는데, 수백 개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들이 주 교육부에서 준 교재를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를 구체적인 전략들, 자료들, 시청각 교재, 평가, 방법 등 다 개발해놨습니다.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노력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손봉호 우리는 수능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단순히 감명적인 것,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등 그런 걸 가르치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확실히 믿고 자기도 그리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권위와 효력이 있지, 설교 따로 행동 따로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설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국원 옛날에는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면 공부 패나 한 사람들이 스터디 그룹으로 모이는 거였는데, 요즘은 개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이제 세계관 운동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쓰면 약이 되는지도 대중 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적으로 의식을 깨우는 일에 이게 도움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몇 교회가 세계관 학교도 하잖아요. 굉장히 잘 됩니다. 목회자가 드라이브를 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적어도 교인들이 따라서 합니다.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한 번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엔 와서 섬기라고 합니다. 이게 앞서서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와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그룹 리더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체화가 됩니다.

손봉호 그래야 진짜 세계관이죠.

신국원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랄까요, 희망이 보이는 사례죠. 재밌는 건 교회를 가서 보면 자생적인 기독교 세계관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한 번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게 자기가 대학 때부터 꾸준히 쫓아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만 될 수 있으면 한국의 평신도들 가운데 이미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양인평 저는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시화 운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은 안 쓰지만 그 정신으로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유사 기관들과 서로 협의한다든지 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요건이 뭐 우리 이사장님도 걱정하셨지만, 기독교대학교 같은 곳은 다들 원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확산되고, 생활화되고, 구체화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성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손봉호 동역회도 처음에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자는 목적이 아니었고, 철학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철학하자, 과학 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과학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계관 운동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을 실천해 보자는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WORLDVIEW.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기독교 세계관 확산을 위한 운동에 많은 관심으로 동역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해주신 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